남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서동주 광주대 교수)는 지난 3~4월 센터 등록 기관 4개소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

학부모 참관프로그램은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 소개, 순회방문 지도 및 조리실 현장 참관, 어린이 교육 참관 등이 진행됐다.

서동주 센터장은 "안전한 급식 제공과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급식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이달의 전남대인에 이진아 박사·생물재료공학연구실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는 보스턴 대학 소속 이진아 박사와 전남대 생물재료공학연구실을 '이달의 전남대인'으로 선정했다. 〈사진〉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박사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에이즈 치료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가 세계 최대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실리면서 국내외 연구계에 주목을 받았다.

또 정 총장은 선정된 생물재료공학연구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사, 석사, 학부생 등 구성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농생명과학대학 생물재료공학연구실은 여러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기업을 설립해 주목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송원대 대외협력부총장에 권성옥 교수 임명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이사장 고경주)는 1일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대외협력부총장에 권성옥〈사진〉 교수를 임명했다.

권 부총장은 2006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취득하고 2014년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돼 대외협력처장을 거쳐 현재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생활체육회 광주검도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검도인이기도 하다.

이번 인사에서 인태명 교수는 대외협력처장으로 임명됐다.

송원대학교 고경주 이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중책을 맞게 되신 본부 보직교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베트남 LEE & KIM과 산학협력 협약

호남대학교 드림라이프대학(학장 최영화)은 지난달 30일 라이프디자인센터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한국식품 제조 기업인 LEE & KIM(대표 장정인)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최영화 학장과 외식조리학과장 김영균 교수, LEE & KIM의 장정인 대표와 박재관 대표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연계, 호호김치 브랜드 론칭 방안, 해외 산학협력교류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과 인재파견, 상품개발을 위한 공동과제 운영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호남대학교 김치사관학교(책임교수 김옥심) 특별교육과정에 참여해 우리김치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몰입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 학장은 "호남대의 브랜드를 통한 K-Food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창립 48주년' 동강대, 수업평가 우수교원 표창

동강대(총장 이민숙)는 최근 학원창립 48주년을 기념해 교내 본관 1층 장원홀에서 '2023학년도 수업평가 우수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노재성 교수가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됐고 학과 계열별로 건축과 이상희 교수, 간호학과 허숙 교수, 사회복지과 정영일 교수가 표창을 받았다. 또 겸임·초빙 및 강사 분야에서 간호학과 정인옥 교수와 AI융합전기과 김정대 교수가 각각 우수 교원으로 뽑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흥철 사무처장 취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신임 사무처장에 박흥철〈사진〉 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취임한다고 1일 밝혔다.

박흥철 사무처장은 경기도 안양시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사해 중앙회 사회공헌협력팀장, 대구, 강원, 인천 사무처장을 거쳐 중앙회 나눔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 사무처장은 "나눔의 고장 광주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복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변화하는 사회복지 흐름에 맞춰 지역에 필요한 배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SINCE 1952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5 사랑의 가족(재)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백세(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수사반장 1958(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7인의 부활(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00 뉴스브리핑
3	00 어린이동물티비(재)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인앱(재) 30 TV 유치원(재)	55 기분 좋은 날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KBC특집 다큐 바다와 풍경을 담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스페셜	00 거멍숲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3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한국사 대모험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15 네모세모 스페셜 35 시사터치! 따따부따 50 SBS 8 뉴스
8	30 수지맞은 우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덩치 서바이벌-먹찌빠
10	00 가정의 달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50 KBS 뉴스라인W	15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서울 페스타 2024 개막공연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네모세모(재)
12	00 KBS 중계석	35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싱싱!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미술쇼
07:15 빅 블루
07:30 하프와 친구들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5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09:05 곰끼와 처음 수학
09:20 인간이 되자!
09:40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15:15 클래스 e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유치원(재)
16:30 페파 피그
16:40 마샤와 곰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40 레인보우 버블젬
18:10 EBS 뉴스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9:20 고향민국
19:50 인간과 바다(재)
20:40 세계테마기행
〈시간을 거슬러 모로코
-천년 도시를 거닐다〉
21:35 한국기행
〈산사의 봄 4부
보명 스님의 맛있는 정원〉
21:55 귀하신 몸
22:45 다큐멘터리K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 (음 3월 24일 丙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48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6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72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항시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84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96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5, 70

丑 37년생 오늘 일을 미룬다면 쉽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미뤄지다가 흉조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49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61년생 단순한 비교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73년생 평시에 가졌던 의문이 풀리리라. 85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97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97, 73

寅 38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50년생 머지않아서 길조가 상승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62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74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86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98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99

卯 39년생 말하고 싶어도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51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63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75년생 뒤섞이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겠다. 87년생 만남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많겠다. 99년생 눈에 띠지 않게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8, 94

辰 40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52년생 방심하고 다닌다면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다. 64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니라. 76년생 낭설에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88년생 얼핏 보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다. 00년생 적응하다 보면 극복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81

巳 41년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53년생 향후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5년생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77년생 일관된 기조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89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01년생 의도한 일은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4, 87

午 42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처하라. 54년생 반추해 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66년생 예외로 치부해 왔던 바가 중심에 서게 된다. 78년생 실효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가 있다. 90년생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02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32, 63

未 43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55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67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 보아라. 79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모순이다. 91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03년생 관점을 달리한다면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행운의 숫자 : 07, 89

申 44년생 절실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씩 해결되리라. 56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68년생 단순하거나 감각적인 판단은 오류를 부를 것이니 다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라. 80년생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길서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낀다. 04년생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19, 83

酉 45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57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질 수도 있다. 69년생 근원부터 해결해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81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93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오해가 의외로 많은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05년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12, 53

戌 46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58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7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82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선길후흉할 수이다. 06년생 일시적인 과욕으로 인해 기존의 성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49, 58

亥 35년생 과거사가 현재에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덮어 둘 일이 있다면 끝까지 신경 써라. 47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59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형편에 따르라. 71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3년생 역발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95년생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0, 54